

# 원희룡 장관, "서울-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"

## - 23일 서울 강동구 고속도로 현장 찾아 사업관리 철저 당부·지역 의견 청취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(목)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-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
  
- 원 장관은 안성-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, “안성-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”며, 철저한 사업 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.

  - 이어,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.

  
- 아울러,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-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“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·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”면서,
  - “GTX-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11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